





서가풍경

그 주인을 닮아 젊어지는 서가

한양대 김용운 명예교수의 서가

시간이 흐를수록, 책이 쌓여갈수록 서가 주인은 점점 젊어진다. 이 기묘한 반어법을 우리는 한 노(老)선생의 서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젊음은 그간 지나온 시간의 깊이와 폭 위에서 서 있다. 한양대 김용운 명예교수(73)의 서가에서 우리는 한없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젊음을 만날 수 있다.

“마흔살이 넘어가니까 순수수학의 세계가 멀어집니다. 아무래도 힘이 들어요. 그러면서 수학사로, 수학철학으로, 종내에는 문명사와 역사에 시선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김교수의 서가는 곧 그가 걸어온 길이다. 수학서, 동양문명 관련서, 불교서 등이 서초동 한국수학문화연구소의 한쪽 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한 길에서 너무 많이 벗어난 것은 아닐까?

“제가 원형 연구를 시작하니까, 다들 의도가 아니냐고 묻더군요. 하지만 수학적 사고로 문명사를 본다는 얘기가니까 크게 다른 공부는 아닙니다.”

이 달 말쯤 일본작가 진순신과 김교수의 대담집이 출간된다. 이 책은 한·중·일 3국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뤘다. 이 주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교수의 관심사는 이제 동양인의 원형 탐구로 넓어지고 있다. 이 탐구 결과, 김교수는 변화와 생성이 역사 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많은 석학들이 예견한 문명사적 전환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가슴이 벅차 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안의 소년처럼 21세기를 맞아 김교수는 꿈에 부풀어 있다. 읽을 책도 많고 쓸 글도 많다. 그러는 동안, 김교수의 서가는 주인을 닮아 점점 젊어지고 있다. - 김연수 기자

